

경판본 <소대성전>의 변이 양상에 대한 재검토*

이지영**

- I. 서론
- II. 경판본 <소대성전>의 판본별 글자수 비교
- III. 경판본 <소대성전>의 행문 비교
- IV. 경판본 <소대성전>의 변이 방향과 원인
- v. 결론

<국문초록>

그동안 경판본 <소대성전>의 변이 양상은 장수 축소의 일 방향으로만 조맹되면서, 장수가 적은 판본에서 행문이 더 긴 이유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 이 논문은 경판 <소대성전>의 36장본·24장본·23장본·20장본을 비교하여, 판본 간 변이 양상을 재검토하였다. 먼저 각 판본의 글자수를 비교하여 24장본이 20장본보다 서술분량이 적다는 점, 20장본은 11장 이하에서 반엽당 글자수가 줄면서도 서술분량이 늘어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 서사단락별 글자수를 비교함으로써 20장본은 ‘청룡사 의탁’과 ‘호왕의 침입’ 대목에서 36장본보다도 글자수가 많고, 36장본은 전반부와 후반부의 글자수가 비슷하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판본별 변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23장본과 36장본, 24장본과 20장본의 행문을 각각 비교하였는데, 20장본의 부연 대목은 구체적인 서술을 지향하고, 관용어구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서사맥락에 어울리지 않는 대목이 존재한다는 등 점에서 36장본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경판 <소대성전> 36장본의 행문이 독자의 다양한 취향에 부합하기 위해서 부연되었

* 이 논문은 충북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2024)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였다.

핵심어: 경관 방각본, <소대성전>, 36장본, 24장본, 23장본, 20장본, 글자 수 비교, 행문 비교

1. 서론

조선시대 소설은 대부분 필사본으로 유통되었지만, 18세기 이후에는 세책과 방각본이 등장하여 소설이 상품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서울 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세책과 달리 방각본은 서울 지역 외 전주 지역에서도 간행되어 유통되었다. 경판본과 완판본은 각자체나 종이, 그리고 내용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역적 특징을 뚜렷하게 드러내며 시기적으로도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

방각본 소설은 나손 김동욱이 자료집²⁾을 간행하면서 연구 자료로 활발하게 이용되었지만, 출판 양상에 대해서는 조명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완판 방각소설을 대상으로 한 류탁일의 연구³⁾ 이후 텍스트의 내용뿐만 아니라 방각본의 간행 방식 및 유통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다.⁴⁾ 경판 방각소설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경판 방각본 간행에 대해서는 이창현의 업적이 두드러진다.⁵⁾

이창현은 방대한 경판본 자료를 대상으로 간행 양상 및 판본 간 차이를 조사하여 경판본의 상품으로서의 특징을 포착하였다. 즉, 동일한 작품을 여러 번 간행했을 경우 후행 판본에서 장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비용 절감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

1) 류준경은 경판이 완판보다 앞섰을 것으로 추정하였다.(류준경, 『독서층의 새로운 지평 방각본과 신활자본』, 『한문고전연구』 13, 한국한문고전학회, 2006.)

2) 김동욱 편, 『고소설판각본전집』 1-5, 연세대출판부, 1973-1975.

3) 류탁일, 『완판 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 학문사, 1981.

4) 방각본 소설의 간행과 유통 및 새로운 자료에 관한 기존 논의에 대해서는 유춘동, 『방각본 소설의 새 자료와 과제』, 『고전과 해석』 17,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학회, 2014; 정병설, 『조선시대 소설의 생산과 유통』, 서울대출판부, 2016 참조.

5) 이창현, 『경판 방각소설 판본 연구』, 태학사, 2000.

한 경판의 간행 양상은 후행본에서 장수가 늘어나는 완판의 간행 양상과는 대조적인데,⁶⁾ 경판 방각소설의 후행본에서 장수를 줄여갔다는 이창현의 주장은 학계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되고 있다.

그러나 완판본이 장수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는 만큼 경판본의 변모 방향이 단지 장수 축소의 일 방향으로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장수의 축소가 서술분량의 축소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장수를 줄이는 것과 행문을 축약하는 것은 별개로 보아야 하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서술분량이 많은 판본이 서술분량이 적은 판본보다 선행한다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경판본 중에는 다른 판본보다 장수가 적으면서도 서술분량이 많은 경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명이 없었다.

이 글에서는 경판본 소설 중에서 가장 오랜 시기 인기를 누렸을 것으로 거론된 바 있는 <소대성전>을 대상으로 이 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경판본 <소대성전>은 현재 36장본·30장본·24장본·23장본·21장본·20장본·17장본·16장본 등 총 8종의 판본이 알려져 있는데,⁷⁾ 경판 <소대성전> 중 간행 시기가 가장 앞선 것으로 추정된 것은 36장본이고, 후행본일수록 비용절감을 위해서 장수가 줄었을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24장본의 후행본으로 추정되는 20장본의 후반부 행문은 24장본에 비해 부연되어 있다.⁸⁾ 이러한 사례로 볼 때 후행본이 비용절감만을 목적으로 개판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글자수를 이용하여 경판 <소대성전>의 서술분량을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요 판본의 행문을 비교하고자 한다.⁹⁾ 이를 통해서 경판 <소대성전>의 변이 양상을 재검토하겠다.

6) 전상욱은 완판 29장본 <춘향전>이 40장본의 축약본일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이후 완판본에서 장수가 늘어났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았다.(전상욱, 『방각본 춘향전의 성립과 변모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참조.)

7) 30장본은 유춘동이 일본 고마자와 대학 소장본을 소개하면서 알려졌고(유춘동, 『일본 고마자와 대학 다쿠스쿠 문고 소장 조선전적과 고소설에 대한 연구』, 『한국학논집』 48,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2) 17장본은 전상욱이 정명기 소장본을 소개하면서 알려졌다.(전상욱, 『한글방각소설신자료 고찰』, 『열상고전연구』 31, 열상고전연구회, 2010.)

8) 이창현은 20장본의 직접적인 선행본이 24장본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지만(이창현, 앞의 책), 서경희는 20장본이 24장본을 부연했다고 보았다.(서경희, 『<소대성전>의 서지학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II. 경판본 <소대성전>의 판본별 글자수 비교

1. 판본별 글자수

이창현은 경판 방각본 후행본에서 행수를 늘리거나 행문을 줄여 장수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¹⁰⁾ 경판 <소대성전>의 경우 36장본은 반엽당 14행으로 판각하였는데, 24장본은 제21장 이하부터 14행을 15행으로 늘려 개각하였고, 23장본은 15행으로 간행하였으며 21장본은 제11장 이하부터 15행을 16행으로 늘려서 개각하였다. 또 20장본은 반엽 16행이다. 16장본의 경우 반엽 15행으로 20장본보다 행수가 더 적는데, 행문 축소를 통해서 분량을 줄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장수를 줄이는데 행수와 행문 축소의 방식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 행당 글자수는 동일한 판본 내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행수만으로는 서술분량의 증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서술분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글자수를 세어보아야 한다. 글자수를 일일이 세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기에 이 글에서는 각 판본의 행문을 모두 한글 파일로 입력 후에 입력본을 이용해서 글자수를 계산하였는데, ‘아래 아 한글’ 프로그램에서는 ‘·(아래 아)’가 들어가면 별개의 글자로 인식하는 문제가 있다. 즉, ‘하늘’을 두 글자가 아닌 네 글자로 인식한다. 이러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글자수를 계산하였다.¹¹⁾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한 주요 판본별 글자수는 다음과 같다.

9) 서경희는 경판 <소대성전>을 36장본-24장본-20장본 계열과 23장본-21장본-16장본 계열로 나누었다.(위의 논문, 86면) 전상욱은 17장본이 23장본을 축약·개각한 것이라 하였고(전상욱, 앞의 논문, 2010, 157~159면) 유춘동은 24장본이 30장본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하였다.(유춘동, 앞의 논문, 309~313면) 이를 참고하여 본고에서는 서로 다른 계열인 36장본과 23장본, 또 동일한 계열로 파악되었던 24장본과 20장본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17장본과 16장본은 23장본 계열의 서술분량 및 장수를 축약했다는 데에 이견이 없어 제외하였으며, 30장본은 유춘동이 24장본의 선행본으로 추정하였지만 후반부는 23장본과도 친연성을 보이고 있어 계열이 불분명하기에 이 글에서는 일단 제외하였다.

10) 이창현, 앞의 책, 123~124면.

11) 본고에서는 정확한 셈을 위해 OldHangeul(<https://github.com/go00ood/OldHangeul>)에 포함된 OldTexts 클래스를 활용하여 len() 연산을 통해 글자수를 계산하였다.

표 1 <관본별 글자수>

36장본				24장본				23장본				20장본			
번호	앞	뒤	글자수	번호	앞	뒤	글자수	번호	앞	뒤	글자수	번호	앞	뒤	글자수
1	278	316	594	1	278	316	594	1	392	413	805	1	449	465	914
2	307	308	615	2	307	307	614	2	412	411	823	2	447	439	886
3	311	313	624	3	348	335	683	3	417	410	827	3	493	499	992
4	304	315	619	4	343	342	685	4	417	419	836	4	515	488	1003
5	317	315	632	5	339	349	688	5	423	428	851	5	498	546	1044
6	310	311	621	6	349	347	696	6	417	410	827	6	552	457	1009
7	313	309	622	7	351	360	711	7	411	425	836	7	481	465	946
8	318	309	627	8	351	348	699	8	422	419	841	8	478	505	983
9	314	309	623	9	356	349	705	9	423	421	844	9	506	502	1008
10	306	305	611	10	349	345	694	10	415	424	839	10	507	505	1012
11	310	302	612	11	352	357	709	11	424	429	853	11	380	374	754
12	299	303	602	12	363	354	717	12	420	415	835	12	348	350	698
13	307	309	616	13	343	341	684	13	416	418	834	13	356	351	707
14	304	304	608	14	351	356	707	14	410	415	825	14	384	379	763
15	298	299	597	15	351	348	699	15	414	409	823	15	366	362	728
16	308	314	622	16	345	343	688	16	417	422	839	16	354	367	721
17	315	303	618	17	350	350	700	17	418	421	839	17	358	360	718
18	304	307	611	18	353	351	704	18	420	419	839	18	414	418	832
19	307	313	620	19	350	342	692	19	416	416	832	19	405	445	850
20	321	308	629	20	343	347	690	20	418	437	855	20	417	319	736
21	307	312	619	21	397	387	784	21	417	422	839	총합	17,304		
22	315	316	631	22	385	370	755	22	439	443	882				
23	317	318	635	23	370	363	733	23	439	375	814				
24	318	314	632	24	359	367	726	총합 19,238							
25	334	326	660	총합	16,757										
26	328	334	662												
27	331	330	661												

28	333	319	652
29	325	336	661
30	335	322	657
31	318	311	629
32	317	321	638
33	325	328	653
34	314	343	657
35	322	311	633
36	262	0	262
총합	22,265		

*판본별 반엽당 행수

36장본- 14행

24장본- 14행(제21장부터 15행)

23장본- 15행

20장본- 16행

판본별로 반엽당 글자수를 살펴보면, 36장본의 반엽당 글자수가 가장 적고 20장본의 제1~제10장에서 반엽당 글자수가 가장 많다. 대체적으로는 장수가 적은 판본에서 반엽당 글자수가 더 많은 양상을 보이지만, 20장본의 제11장 이하는 제18~19장을 제외하면 24장본의 글자수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많다.

동일 판본 내에서 반엽당 글자수가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24장본은 제20장까지는 14행이다가 제21장 이후부터 15행으로 판각되면서 글자수도 늘어났다.(굵은 글씨 표시) 또 20장본은 각자체가 달라지는 제11장부터 반엽당 글자수도 달라졌다.(굵은 글씨 표시) 즉, 20장본의 제11장 이하의 반엽당 글자수는 제10장까지의 반엽당 글자수보다 적다. 24장본과 20장본의 사례로 보면, 글자수의 변화가 판식의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0장본의 전체 글자수는 17,304자로, 장수가 더 많은 24장본의 16,757자에 비해서 글자수가 더 많다. 장수는 줄었지만 서술분량은 늘어난 것이다. 또 23장본의 글자수도 총 19,238자로 24장본보다 2,480여 자 더 많아서 역시 장수는 줄었지만 서술분량은 늘어났다. 36장본은 22,265자로 23장본보다 3,027자 많은데, 23장본의 반엽당 글자수로 추산하면 서너 장 정도의 차이이다. 현재 23장본과 36장본의 장수 차이는 13장이지만 23장의 반엽당 글자수를 적용할 때는 그보다 적은 서너 장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장수에는 반엽당 글자수가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2. 서사단락별 글자수

그렇다면 글자수를 통해서 서사단락별 서술분량의 변화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서사단락별로 글자수를 비교하여 판본에 따라 어떤 대목이 확장되고 축소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서사단락을 나누어야 하는데, 서경희는 <소대성전>의 서사단락을 ‘탄생-고난-구조-박해-수련-입공-결연과 영화’로 나누고 각 단락별로 이본 변이를 고찰한 바 있다.¹²⁾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고려한 서사단락의 구분이라면 ‘탄생’과 ‘고난’을 나누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서사단락별 서술분량의 변화를 살펴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서술분량의 차이가 크지 않은 서두의 ‘탄생’과 ‘고난’을 하나로 묶는다. 또 소대성이 청룡사 주지에게 보검을 얻고 이승상과 용왕을 만나 갑주와 청총마를 각각 얻는 대목은 이후 출전 대목과 분리하였다. 이를 하나로 묶을 경우 군담의 확대 양상을 세밀하게 살펴보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마지막으로 채봉과의 혼인 대목은 노왕이 된 소대성이 채봉의 집에 태감을 보내는 대목부터로 한정하였다. 서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소대성이 노국에 도착한 대목부터 나누어야 하겠지만, 이 부분의 판본 간 변이가 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4종의 판본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문을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표 2와 표 3 참조)

표 2 <서사단락 구분>

순번	서사단락	마지막 구절 ¹³⁾	
1	소대성의 몰락	36·24·23·20장본	~천도 어찌 무심하리오
2	청주 이승상의 구조	36·24·23·20장본	~못내 흠양하더라
3	처가 식구 박대	36·24·20장본	~가문의 불행이라 하더라
		23장본	~해연한 일이 있으리오
4	영보산 청룡사 의탁	36·24·23·20장본	~유발승이 되었더라
5	효왕의 침입	36·24·23·20장본	~성화 십삼년 추구월이라
6	보검, 갑주, 청총마 얻음	36·23장본	~만리강산은 눈앞에 벌였더라
		24장본	~그 말이 풍우같이 행하여
		20장본	~회오리 바람에 가랑잎 뜬듯하여

12) 서경희, 앞의 논문, 40~43면.

7	출전과 입공	36장본	~태감을 이부로 보내니라
		24·20장본	~승상부에 보내어 통훈하니라
		23장본	~태감을 보내어 탐지하라 하다
8	채봉과의 혼인	36장본	~친추에 유전하니라
		24장본	~치국태평하더라
		23장본	~재위 삼십일년일러라
		20장본	~가급인족하더라

표 3 <서사단락별 글자수>

	36장본	24장본	23장본	20장본
①소대성의 몰락	2,207	2,205	2,116	2,192
②청주 이승상의 구조	5,197	5,199	4,849	5,095
③이승상 가족의 박대	3,607	3,593	3,495	3,593
④청룡사 의탁	980	977	927	1002
⑤호왕의 침입	870	867	823	965
⑥보검,갑주, 청룡마	1,931	1,428	1,814	1,651
⑦소대성의 출전과 입공	5,327	2,134	3,904	2,449
⑧채봉과의 혼인	2,146	354	1,310	357
합계	22,265	16,757	19,238	17,304

글자수로 볼 때 소대성이 청주 이승상의 집을 떠나기 전(①~③)까지 23장본을 제외한 나머지 판본들의 글자수 차이는 크지 않다. 소대성이 이승상의 집을 나와서 청룡사로 가는 대목(④)과 호왕이 침입하는 대목(⑤)에서 36장본과 24장본의 글자수 차이는 미미한데, 장수가 가장 적은 20장본의 글자수가 가장 많다는 점이 주목된다. 23장본은 이 부분까지 글자수가 가장 적다.

군담이 시작되는 ⑥대목에서는 36장본의 글자수가 눈에 띄게 많고 24장본의 글자수가 가장 적다. 소대성이 채봉과 혼인하는 마지막 ⑧대목에서도 36장본의 글자수가 가장 많으며 23장본 또한 글자수가 적지 않은데, 24장본과 20장본의 글자수는 매우 적다. 이러한 서사단락별 글자수의 추이를 보면 ⑥부터 판본별 차이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판본별로 표기가 다르기 때문에 편의상 현대어 표기로 바꾸어 제시한다.

이유진은 ①부터 ③까지를 전반부로, ④부터 ⑧까지를 후반부로 나누어 장수를 기준으로 이분별 서술분량의 차이를 비교하고, 경관본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현격한 서술분량의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¹⁴⁾

그러나 글자수를 이용하여 23장본·24장본·36장본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서술분량을 비교해 보면 이와는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표 4 참조) 즉, 24장본의 경우 후반부의 글자수가 전반부의 절반 정도라서 차이가 크지만, 23장본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1,682자로, 전체 글자가 10,460인 것을 고려하면 현격한 차이로 보기 힘들다. 게다가 36장본의 경우에는 후반부의 글자수가 오히려 더 많은데, 그 차이는 불과 243자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 <전반과 후반의 글자수 비교>

판본	전반	후반
경관23장본	10,460자	8,778자
경관24장본	10,997자	5,761자
경관36장본	11,011자	11,254자

그렇다면 군담 대목은 어떠한가? 선행연구에서는 경관 <소대성전>의 군담 비중이 장수가 적은 판본일수록 낮아진다고 하였는데,¹⁵⁾ 군담 부분(⑤~⑦)의 글자수로 보면 36장본과 23장본의 군담 비중 차이는 불과 2.04%이다.(표 5 참조) 그리고 네 판본 중에서 군담의 비중이 가장 낮은 판본은 24장본인데, 20장본의 군담 비중보다도 3.27% 더 낮다. 군담 부분의 글자수는 36장본>23장본>20장본>24장본 순으로 적어서, 군담의 서술분량

14) 이유진이 장수를 기준으로 제시한 경관본의 전반 분량과 후반 분량은 다음과 같다. (이유진, 『소대성전 이본의 계통과 전변과정』,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137~138면.)

판본	전반 분량	후반 분량
경관16장본	12.5	3.5
경관21장본	13	8
경관23장본	14	9
경관24장본	18	6
경관36장본	21	15

15) 위의 논문, 138면.

은 장수와 비례하지 않는다.

표 5 <판본별 군담 부분 글자수 및 서술 비중>

	36장본	24장본	23장본	20장본
⑤호왕의 침입	870	867	823	965
⑥보검, 갑주, 청총마 얻음	1,931	1,428	1,814	1,651
⑦소대성의 출전과 입공	5,327	2,134	3,904	2,449
군담 부분 글자수/전체 글자수	8,128/22,265	4,429/16,757	6,541/19,238	5,065/17,304
군담 비중	36.5%	26.43%	34.1%	29.27%

이창현은 24장본보다 20장본의 행문이 긴 대목이 있는 것으로 보아 20장의 저본은 24장본이 아닐 것으로 추정하였다.¹⁶⁾ 그런데 20장본의 경우 제 11장 이하부터 반엽당 글자수가 줄었다. 장수를 줄이려는 의도에서 후반부의 개각이 이루어졌다면 반엽당 글자수를 늘리거나 서술분량 자체를 줄여야 하는데, 20장본의 제11장 이하는 서술분량은 늘어나면서 반엽당 글자수는 줄어든 것이다. 24장본의 해당 부분이 심하게 축약된 것을 보면 이창현의 주장대로 20장본의 후반부 내용은 24장본이 아닌 또 다른 선행본의 내용을 수용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소대성이 청룡사를 찾아가는 ④청룡사 의탁과 ⑤호왕의 침입 부분에서 20장본의 글자수는 23장본과 24장본은 물론이고 36장본보다도 많다. 20장본이 11장 이하에서 기존 판본을 저본으로 활용했다면, 36장본보다도 선행하는 판본을 활용했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소대성전>의 판본 간 행문 비교를 통해 축약 및 부연된 양상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선행연구에서는 경판 <소대성전>이 36장본-24장본-20장본의 계열과 23장본-21장본-16장본 계열로 나뉜다

16) 이창현, 앞의 책, 125~132면.

고 하였다.¹⁷⁾ 또한 23장본 계열에서 21장본은 23장본과 거의 같은 내용을 장수만 줄여 판각한 것이고 16장본은 행문을 축소하여 장수를 줄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이 글에서는 20장본과 24장본, 36장본과 23장본의 행문 비교를 통해서 경판본 변이 양상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III. 경판본 <소대성전>의 행문 비교

1. 23장본과 36장본의 행문 비교

그동안 선행연구에서는 경판 <소대성전>의 행문이 확대·축소되는 사례를 통해 장수 축소의 근거를 찾거나 판본 간 친소관계를 고찰하였다.¹⁸⁾ 그러다 보니 행문의 서술상 차이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군담 장면의 축소 양상을 밝혀서 독자층의 취향으로 해석하기도 하였지만, 행문 축소 경향이 뚜렷한 16장본을 중심으로 하였고 다른 판본들과의 행문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¹⁹⁾

경판 <소대성전> 중에서 특히 23장본과 36장본의 관계는 선명하지 않다. 서혜은은 23장본이 36장본을 저본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지만,²⁰⁾ 23장본의 행문은 36장본보다 긴 대목도 있고 표현이 아예 달라진 대목도 있다. 이 때문에 이창현은 36장본을 줄인 또 다른 판본이 있었고 이를 저본으로 한 것이 23장본이라고 하였는데,²¹⁾ 36장본이 간접적으로나마 23장본에 영향을 주었다면 두 판본의 행문 차이를 세밀하게 살펴서 행문 변이의 양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두드러진 차이는 36장본이 전반적으로 23장본에 비해 서술분량이

17) 주석 9) 참조.

18) 이창현, 앞의 책, 123~148면; 서경희, 앞의 논문.

19) 서혜은, 『경판 <소대성전>의 대중화 양상과 그 향유 의식』, 『한국사상과문화』 75, 한국사상과문화학회, 2014.(이 논문은 『경판본 소설의 대중성』, 새문사, 2017에 수록되면서 30장본에 대한 검토가 추가되고 경판본 <소대성전>의 계열 관련 내용이 수정되었지만, 군담 축소에 대한 견해는 달라지지 않았다.)

20) 위의 논문, 273면.

21) 이창현, 앞의 책, 147면.

많아서 장면을 구체화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는 군담 부분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

23장본: 호왕이발서압히이르러상의타신말을질너업지르고창을드러턴즈를견우
머디즐왈

36장본: 호왕이발서압히니르러상의탄말을질너업지르니상이쓰히씨러진지라호
왕이말을잡고창을드러견우머대즐왈

위 인용문은 호왕이 명나라 황제를 협박하는 장면인데, 36장본에서는 밑줄 부분의 서술이 더 들어가서 호왕의 공격으로 황제가 땅에 떨어지는 모습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반면 23장본은 이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36장본은 다음과 같이 인물의 생각과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 많은데, 23장본에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

23장본: 훈번보미정신이황홀하여이욕히싱각하되

36장본: 훈번보미정신이황홀하여훈빅이비월하미마음을정치못하여이욕히싱각
하되

㉢

23장본: 더성이신기이녀겨스레왈선군은엇지하여쇼성을구하신잇고

36장본: 더성이싱각하되이논반다시턴신이나롤구하미로다하고말고나려사레왈
선군이엇지소성의잔명을구하시니잇고형컨디존성을드려지이다

㉡은 소대성이 채봉을 처음 본 장면으로, 밑줄 부분은 채봉을 보고 नी이 나간 소대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은 호왕의 속임수로 불타 죽을 뻔한 소대성을 화덕진군이 나타나 구해주는 장면으로, 36장본에는 소대성이 ‘천신의 구조’에 감탄하는 내용이 더 들어가 있다. 이처럼 23장본에 비해 36장본에는 인물의 생각이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대목들이 더 있다. 그러나 이처럼 추가된 부분이 인물의 내면을 더 잘 드러냈다고 보기는 힘

들다. ㉠에서 밑줄 부분의 내용은 앞의 “정신이 황홀하여”와 중복되고 있으며, ㉡의 밑줄 부분 역시 ‘신기히 여기는’ 대성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데 불과하다.

특히 다음 사례에서 36장본의 추가된 서술은 불필요해 보인다.

㉠

23장본: 크게불너왈희상의어용은길막힌스름을건네쇼서그스름이저를긋치고비를저어강변의다이거늘

36장본: 크게불너왈희상의어용은길막힌형인을건네라그스름이저를긋치고비를강변의디허왈그디는어디로향하느뇨밤비오르라하거늘

채봉의 집을 나온 소대성이 대해를 만났으나 건널 배가 없어 막연하던 차에 배를 보고 도움을 청하는 장면인데, 36장본에서는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소대성에게 어디로 가는지 묻는 밑줄 부분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은 용왕의 명으로 소대성을 구하러 온 선동이므로, 밑줄 부분의 발언은 선동의 신비한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

이처럼 36장본에 추가된 부분이 장면을 구체화하는 경향은 있지만 이를 생략했다고 해서 서술이 빈약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뿐만 아니라 36장본의 추가된 부분이 서사적 맥락에 어긋나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발견된다.

㉡

23장본: 교전슈합의셔용의게죽으니 〃 러무로장졸의예기최찰하여감히출투하는지업는지라

36장본: 교전슈합의셔용의게죽은비되니이러므로명진장졸의예기최찰하여연하여팔장이죽으미

㉢

23장본: 예셔오리만가면즈운동이 〃 스니네정병오천을거느러미복호고스면의시초를만이쓰호드가명일황혼의디성을유인하여드리 〃 니불을지르라

36장본: 이리로오리만가면즈운동이 〃 시니정병오천을거느러미복호엿다가명일황혼의디성을유인하여드리 〃 니사면의시초를만히쓰코블을지르라

㉠은 호왕쪽 장수 서용의 활약으로 명나라 장수가 연달아 죽자 감히 출전하려 나서는 명나라 장수가 없는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문맥으로 보면 ‘명나라 장졸의 예기가 꺾여서 감히 출투하는 자 없다’는 23장본 행문이 자연스러운데, 36장본에서는 ‘예기가 꺾여서’ 다음에 ‘연달아 여덟 장수가 죽었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뒤바뀌었다. 즉 팔장이 죽은 것은 예기가 꺾인 것의 원인이지 결과가 아닌데, 이를 뒤에 서술함으로써 문맥이 어색해졌다.²²⁾

㉡은 호왕이 소대성을 자운동으로 유인하여 불태워 죽이려는 계략을 세우는 장면이다. 23장본과 36장본의 서술분량은 동일하지만 밑줄 부분의 위치가 다르다. 23장본에서는 매복할 때에 시초를 쌓으라고 하였는데, 36장본에서는 대성을 유인하여 들인 후에 시초를 쌓고 불을 지르라고 하였다. 매복하면서 시초를 쌓아야 유인한 뒤 바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 36장본의 서술은 문리에 맞지 않는다.

이번에는 관용적인 어구가 사용된 대목을 비교해 보자.

㉢

23장본: 성진이놀느보니디성이라발서검광의놀난흔이되여더라

36장본: 성진이놀나즈시보미곳디성이라밋쳐손을놀니지못흐니원수의칠성검이
빛으며성진의머리떠러지느니라

㉣

23장본: 호왕이밋쳐손놀니지못흐여원수의칼아리경흔이된지라

36장본: 호왕이밋쳐손을용납지못흐여원수의칠성검이빛나며호왕의머리느러지
느니라

㉢와 ㉣은 서로 다른 군담 장면인데, 23장본과 36장본 모두 유사한 서술을 반복하고 있어 <소대성전>이 관용적인 표현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6장본의 행문이 23장보다 길지만, 거의 동일한 관용적 서술을 반복하고 있어 행문이 길어진 만큼 서술이 풍부해진 것은 아니다.²³⁾

한편, 36장본의 행문이 23장본보다 짧은 다음과 같은 경우도 발견된다.

22) 이 부분은 24장본의 행문도 23장과 동일하다.

23) “쇼제포흔아미를잠간드러쇼성을살피보니위풍이음 ” 호고청룡이벽해를뒤치느듯빅회괴산의
밭을물고알근듯흐니”에서도 밑줄 부분은 36장본에만 있는데 관습적인 표현이다.

㉞

23장본: 세번지축하아쫘지아니흐면부녀지의를쓴으리라

36장본: 세번지쫘지아니흐면부녀지의를쓴쪄리라

㉟

23장본: 쇼계아미를숙이고마지못흐여산호필드러일필휘지흐니

36장본: 쇼계마지못흐여산호필을드러일필휘지흐니

㊱

23장본: 쇼성의출립을무르미녀아의형실이아니라흐시니

36장본: 쇼성의출납을무르미녀형이아니라흐시니

㉞~㊱은 23장본이 36장본에 비해 행문이 더 긴데, 해당 부분의 24장본 행문도 23장본과 동일하다. 선행연구의 주장대로 36장본이 선행본임이 분명하다면, 23장본과 24장본이 선행본인 36장본의 행문에 내용을 추가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사례들처럼 두 판본의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은 데도 행문이 늘어난 것을 보면 판본 변이가 장수 축소의 방향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²⁴⁾

그런데 채봉과의 혼인 대목에서는 23장본과 36장본 모두에서 서술이 크게 확대되면서 이전까지의 서술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23장본에서만 나타나는 서술도 많아서 36장본과 23장본의 내용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㊲

23장본: 홀연청죄나라와쇼저의팔에안져세번올고가거늘그시를잡으야하다가늘
느끼니흐쫘이라고허너겨는영더려몽스를말흐니는영이디왈청초는선왕모전신흏트
식라범상홀증심이아니 〳 반다시조흔일이이스리로소이다

36장본: 홀연청죄나라와쇼저의팔의안즈며세번올거늘늘나찌다르니일장춘몽이
라심중의 〳 홀허여즘을닐우지못흐더니

24) 이창현은 23장본의 저본이 36장본이 아니라 36장본을 축약한 '29장본'(가정)일 것이라고 추정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36장본에 선행하는 또 다른 판본이 없는 한 후행본에서 행문이 축소된 것은 설명하기 힘들다. 유사한 사례가 경판 <춘향전>에서도 나타나는데, 이지영은 경판 춘향전의 텍스트 변모가 독서물로 전환되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서 행문 축소를 이윤 추구의 측면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지영, 『경판 <춘향전>의 개작방향에 대한 재론』, 『어문연구』 39(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1)

㉞

23장본: 훈곳의일위쇼년부인이최복을갖초고안저스니비록녹발이부제호는유순정 훈티되진짓경국지식이라십니의흠양호여그박명을훈하더니쇼제이일을알고노 즐왈이집이비록피퍼호는더국각노덕이여늘노왕의궁인이 다지무례호노시비를명 호여쓸어니치라호고쇼장을지으고협실노드러가니그위의닝 호여스름을진를케호 는지라티감이황공호여노와부인고호직왈첩이왕명을불히고저호밀너니쇼부인외 람타척호시니청죄코저호되호혜구름이입의월광을같이오미그저물너가물고호는니 다부인왈너이편협호여과도이헌가시부니노인은괘려치말는티감이호직고도라와

36장본: 훈곳의니러니일위부인이쇼복을넙고안저스니설부화용이진짓경국지식 이라호번보미정신이황홀호여과이그박명호물츠탄호더니쇼제이일을알고대호호여 쭈지저왈이집이비록잔괘호나중국대승상의집이여늘엇지이리도무례호노호고시비 를블너미러니치라호거늘티감이황공호여물너와부인고하직호고노궁도라가

㉞은 노나라 태감이 채봉의 집에 이르기 전에 채봉이 꿈을 꾸는 장면이고 ㉞은 상복을 입고 슬퍼하는 채봉의 모습을 노나라 태감이 발견하는 장면이다. 23장본에는 채봉이 꿈을 꾸 뒤 시비 난영과 대화하는 장면과 태감이 채봉의 질책을 듣고 부인에게 청죄하는 장면이 추가되어 있다.

그런데 ㉞과 ㉞에서 부연된 23장본의 행문은 완판 43장본과 유사하다. 완판 43장본의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㉞

완판43장본: 훈미중의좁을드니청조나려와소제무렵의안거늘즈부려호미니라갈 제늘너씨다르니남가일몽이라난영다려몽스를설화호니난영왈청조는셔왕모의스환 신오니무삼반가온기별이잇슬가호나이다호더니

㉞

완판43장본: 가정을명호여등미러니치라호는호령이추상갓튼지라티감이황공호 어나와부인의계호직왈부인이허락호시미귀경호옵더니쇼부인껴웁서그러딴척호오 미더부인게호직스죄코즈호오나씨드저가오니죄을스호옵소서부인왈여이의성품이 초토의안이잇슬제도와인과말이업더니직금마음이어둔스름이라귀인을디하여과도 훈가시푼이도로혀수괴호도나티감이호직호고도라와

위에서 확인되는바, 23장본에서 추가된 내용은 완판 43장에서도 나타나

고 있다. 행문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채봉이 꿈에 대해 난영과 대화하는 장면과 채봉의 질책에 대해 부인과 태감이 대화하는 내용은 같다.

경관 36장본의 말미 부분에도 23장본에 비해 확대된 부분이 나타나는데, 소대성이 채봉에게 보내는 장문의 편지가 삽입되어 있으며 혼인식 장면 및 혼인 후에 채봉의 오빠들을 초대하여 위로하는 대목이 있다. 행문은 다르지만 이 대목에서 경관 36장본의 내용도 완관 43장본과 유사하다.

이처럼 23장본과 36장본에서 서로 각기 부연된 부분이 완관본 43장본과 유사한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완관본이 경관본보다 늦게 출현했다는 견해를 수용한다면, 완관본이 서로 다른 경관본의 내용을 수용해서 간행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23장본은 해당 부분이 시작되는 제22장이 하에서 글자수가 조금 더 많아지고 있다. 즉, 23장본의 반영당 글자수는 대체로 400자에서 420자 정도인데, 440자 내외로 판각된 사례는 22면과 23면에서만 발견된다. 더구나 이 부분은 각자체도 달라졌다. 이를 고려한다면 23장본이 완관본의 영향을 받아 마지막 대목을 개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36장본에는 청룡사 노승의 모습을 한 부처가 나타나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있다.

㉞

36장본: 일 "은왕이전상의조용이단좌하여더니호노승이늑환장을집고와서우고
머왈인간영육과풍진고락이엇더호노왕이황망이몸흘일너마즐시즈시보니완연호청
룡사부체라신기호물니괴지못호여공경네비호니노승왈지금왕이즉위삼십칠년이나
영산의모들날이며지아니호여시니그스이보중호소서호고문득간디업거늘왕이공중
만벼라보며분향사빈호고니전의드러가청룡스부처의공덕을일코더라명년춘의왕과
휘신기불평호더니과연호가지로승턴호니향년이팔십일세라

23장본: 일일은왕이후로더부러후원천슈각의울노화란을지여춘경을완상호더니
치운속으로우의선관이노려와옴호고왈불구의세계로모도시리이다호고표연이가거
늘찌니호숨이라인호여왕과휘동일의흥호니년이팔십일세요지위습십년일너라

위 인용대목에서 소대성에게 노승이 “인간 영육과 풍진 고락이 어떠하냐?”고 묻는 부분은 <구운몽>의 말미에서 육관대사가 양소유에게 “인간 재미 어떠하냐?”고 묻는 장면과 유사하다. 이러한 내용은 23장본은 물론이

고 완판본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23장본에서도 선관이 나타나지만, 36장본에 등장하는 노승이 <구운몽>의 육관대사의 이미지를 지니면서 부처인 것과 달리 23장본의 선관은 소대성에게 수명을 알리는 전령일 뿐이다. 그러므로 23장본과 36장본의 차이는 축약에 의한 차이로 보기는 힘들다. 23장본이 후행본이 분명하다면 의도적으로 개작했다고 봐야 할 것인데, 이러한 내용이 36장본에서만 나타나고 있어 36장본에서 부연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2. 20장본과 24장본의 행문 비교

20장본은 24장본보다 장수는 더 적지만 총 글자수는 더 많다. 서사단락별로 살펴보면, ①소대성의 몰락과 ②청주 이승상의 구조 부분에서는 24장본의 글자수가 약간 더 많고 ③이승상 가족의 박대 부분은 동일하며, ④청룡사 의탁부터 ⑦소대성의 입공 대목까지는 점차 20장본의 글자수가 더 많다가 마지막 ⑧채봉과 혼인 대목에서는 거의 동일하다.

그럼, 먼저 24장본의 글자수가 더 많은 부분부터 살펴보자.

㉑

24장본: 방년이삼오의니르미아리싼온용모와선연호티되뉴한정 〃 호여턴방빅티
 꽃치붓그리고명월이빛출아이며

20장본: 방년이삼오되미아리싼온용모와선년호티되이서턴빅티꽃치붓그리고명
 월이빛출너며

채봉을 묘사한 대목인데, 24장본의 행문이 36장본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아, 20장본이 행문을 축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한정정하여’ 부분이 생략되어 간결한 표현으로 바뀌었는데 ‘명월이 빛을 아이다(빼앗기다)’ 부분이 ‘명월이 빛을 내다’로 바뀌어 뜻이 달라졌다. 아마도 “수화폐월(羞花閉月)”의 관용적 표현을 생각하지 않고 ‘명월’만 의식하다 보니 ‘빛을 내다’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20장본에서 행문을 축약하면서 의미가 변형된 사례는 다음 경우에서도 발견된다.

㉔

24장본: 즈고로봉이나미황이나고문왕이나시미티신나시니

20장본: 즈고로봉황이나미문왕과티신나시니

이 대목에서도 24장본의 행문은 36장본과 동일하다. 24장본에서는 봉과 황, 문왕과 태사가 각각 대응되도록 표현하였는데, 20장본은 이를 축약하면서 봉황이 문왕·태사와 대응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암수인 봉과 황에 상응하는 문왕과 태사의 관계가 부각되지 않는다. 이처럼 20장본은 관용어구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행문을 축약하면서 의미를 변형시키고 있다.

다음과 같이 24장본의 행문이 36장본과 다르고 20장본의 행문이 오히려 36장본과 유사한 경우도 있다.

㉕

24장본: 푸른들은말꼬말근시니를넛고상셔구름이어리어

20장본: 푸른버들은말근시니를넛고상셔의구름이어리어

이 대목은 36장본에서 “푸른버들은말근시니를넛고상셔의구름이어리여”라고 하여 20장본과 비슷한데, 24장본에서는 버들의 ‘버’자가 빠지고 ‘들넛고’의 ‘들’이 빠지면서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20장본은 36장본에 가깝지만 ‘버들이 시내를 돌렸고’라는 표현을 ‘버들이 시내를 넛고’로 바꾸었다.

이번에는 20장본의 행문이 36장본보다 더 긴 사례를 살펴보자.

㉖

24장본: 쇼리를쫓츠점 〃 드러가니

20장본: 쇼리를쫓츠심산궁곡으로드러가니

㉗

24장본: 은근이반기며제녁지를올니거늘

20장본: 은 〃 이반기고청당좌정호고보니제녁지를올니거늘

㉖은 소대성이 청룡사를 찾아가는 장면인데, 20장본에서는 ‘심산궁곡’이

들어감으로써 공간적인 이미지가 강화되었다. ㉞는 청룡사 승려들이 반기며 여녀제를 올리는 장면인데, ‘청당좌정’을 넣어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려고 한 듯하다. 다만, ‘청당좌정’은 ‘승당좌정’의 오기로 보이는데, 사실적인 묘사보다 관용적인 표현을 넣다 보니 잘못 서술한 것이 아닌가 한다. 두 사례에서 살펴본바, 20장분에 부연된 부분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려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군담장면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20장분이 부연된 양상을 살피기 위해서 36장분의 행문과 함께 비교하도록 한다.

㉞

36장분: 굴돌통이창을빋기고위한을마즈쓰와슈합이못혀여위한이굴통을버히니
 24장분: 굴돌통이창을빋기고위한을마즈쓰와슈합이못혀여위한이굴통을버히니
 20장분: 굴돌통이너드르버혀오리드르고중창을빋기들고위한을마즈쓰와슈합이
 못혀여굴통의머리를버히고횡헝히니

㉟

36장분: 턴지불의지변을만나망지소조혀시더니문득호왕이갓가이니르물드르시
 고급히말기올나피코져혀실신동녀홀브라고다라나시니
 24장분: 턴지불의지변을맞나엇지홀줄몰나말기올나동녀홀브라고다라나시니
 20장분: 턴지터성을보너시고염여무궁혀더니불의지변을당혀미엇지홀줄모로드
 7턴지말게올느동녀를브라고드르느시니일군이더피혀아쥬는지티반이라

㉞은 굴돌통과 위한이 서로 교전하다가 위한이 굴(돌)통을 베는 장면이다. 20장분에서는 밑줄 부분의 행문이 추가되어 있는데, 출전하는 굴돌통의 발언과 위한의 행위가 행문에 추가되어 장면이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24장분의 행문이 36장분과 동일한 것으로 볼 때, 20장분만의 부연으로 판단된다. ㉟는 호왕의 계략에 넘어간 천자가 소대성을 도성에 보낸 뒤에 호왕의 공격으로 피신하는 대목이다. 20장분의 밑줄 부분은 24장분과 36장분에는 없는 내용으로 역시 상황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36장분은 24장분보다 밑줄 부분이 부연되어 있지만, 20장분과는 내용이 달라서 역시 20장분에서 독자적으로 부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으로 살펴본바, 20장분의 행문이 24장분보다 짧은 사례에서는 관용

어구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사례가 발견되었고, 20장문의 행문이 긴 사례에서는 장면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20장본과 24장본의 친연성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20장본의 행문이 부연된 부분은 36장본과 달랐다.²⁵⁾ 이러한 20장본의 변이는 방각본의 개각 방향과 관련하여 중요한 단서가 된다. 선행연구에서는 경판본 <소대성전>의 변모를 장수 축소의 측면에서 주로 논의했는데, 20장본의 경우에는 장수가 줄었으면서도 서술이 오히려 확장되었다. 더군다나 반엽당 글자수가 줄어든 11장 이하에서 서술분량이 오히려 부연되었다는 점은 특이하다.

IV. 경판본 <소대성전>의 변이 방향과 원인

그러면 36장본과 23장본, 24장본과 20장본의 글자수 및 행문 비교를 통해서 확인된 것을 중심으로 방각본의 변이 방향과 원인을 재검토해보자. 앞서 36장본과 23장본, 24장본과 20장본의 행문을 비교한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출할 수 있다.

1. 23장본의 서술은 36장본의 서술보다 간결하고 명확하다.
2. 36장본과 20장본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서술을 지향하며, 군담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3. 23장본과 36장본의 마지막 대목은 서술이 확대되어 있으며 완판 43장본과 유사하다.
4. 36장본과 20장본에는 문맥에 맞지 않는 행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23장본과 24장본에는 해당 행문이 없다.

1과 4로 보아, 행문이 더 길다고 해서 반드시 서술이 풍부하다고 볼 수 없다. 행문이 길어지면서 상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착종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에서 질적인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25) 해당 부분은 20장본의 행문은 23장본과도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23장본이 36장본의 행문을 산삭(刪削)한 것일까? 간결한 23장본의 서술은 구체적인 36장본의 서술보다 빈약해 보이지만, 중복된 서술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명확하게 서사를 전달하고 있다. 2에서 지적한 것처럼 36장본의 서술은 군담 등의 장면을 좀 더 구체화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그 부분에서 관용어구를 사용하고 있다. 또 인물의 생각도 단편적이고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내면을 섬세하게 드러내는 장편소설의 서술과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서술양상을 보면 36장본 행문의 군더더기를 23장본에서 다듬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36장본에 추가되어 있는 행문의 양상이 20장본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36장본에 추가되어 있는 행문이 부연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즉, 20장본의 군담 부분은 23장본이나 36장본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24장본의 내용을 부연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양상이 36장본과 흡사하다. 20장본 역시 관용어구나 중복되는 표현을 사용하여 장면을 부연하고 있어, 서술분량이 늘어나는 만큼 서술이 풍부해진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러한 20장본의 사례로 비추어 보았을 때, 36장본의 행문이 선행본의 행문을 부연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할 것이 3이다. 23장본과 36장본은 여타 판본에 비해 마지막 서사단락인 ‘채봉과의 혼인’ 부분이 확대되어 있다. 특히 소대성이 죽기 전에 청룡사 부처가 나타나는 장면은 36장본에만 나타나는데, 23장본에서 이 부분은 ‘선관의 현시’로 나타난다. 23장본이 36장본의 내용을 변경하여 수용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왕부인이 태감을 보내는 장면 등 36장본에 없는 내용이 23장본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23장본과 36장본 모두 마지막 대목을 부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창현은 36장본을 축약한 ‘29장본’이 존재하였고 이를 저본으로 하여 23장본이 나타났다고 추정하였는데,²⁶⁾ 그렇다면 23장본의 부연된 부분은 36장본이 아닌 ‘29장본’의 행문을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설명을 받아들여더라도 23장본의 저본이 된 ‘29장본’에 36장본에 없는 행문이 어떻게 추가된 것인지 설명되어야 한다.²⁷⁾

26) 이창현, 앞의 책, 47면.

27) 동경외국어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경판 30장본을 검토해 보니, ‘채봉과의 혼인’ 대목에서

그렇다면 36장본이 부연했을 가능성은 없는가? 우선 36장본의 판각 시기부터 살펴보자. 36장본은 반엽 14행으로 판각되었는데, 이창현은 반엽 14행으로 판각된 방각본의 간기가 대체로 1850년 전후라는 점에서 36장본의 간행 시기를 1845년 경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창현의 추정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옥은 이미 1799년 경 삼가현에서 인본(印本) <소대성전>을 보았다고 했으니,²⁸⁾ 36장본이 <소대성전> 최초의 방각본은 아닐 것이다. 또 홍희복은 방각본에 대해서 “가항의 친한 말과 하류의 낮은 글씨로 판본에 개간하여 시상에 매매하니 이루 기록지 못”한다고 하였다.²⁹⁾ 이를 참고하면 홍희복이 <제일기언> 서문을 쓴 1835년 무렵에는 상당수의 방각본이 판매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는 <소대성전>도 있었을 것이다.

한편 <소대성전>의 파생작으로 볼 수 있는 <용문전> 25장본은 1859년에 판각되었는데, “기미석교신간(己未石橋新刊)”이라는 간기로 보아 1859년 이전에 <용문전>이 이미 등장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³⁰⁾ <용문전> 36장본이 반엽 13행으로 판각된 것을 보면, 반엽 14행으로 판각한 36장본 <소대성전>보다 앞설 수도 있다. <용문전> 36장본의 존재로 보아 적어도 <소대성전> 36장본보다 선행하는 또 다른 <소대성전>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높다.

또한 1859년 이전에 <용문전>이 출현했다면, <소대성전> 36장본이 간행될 무렵 군담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은 적지 않았을 것이다. <용문전>은 군담의 비중이 <소대성전>보다도 높기 때문이다. <소대성전> 독자들이 군담에 대해 흥미가 없었다면 <용문전>이 여러 번 간행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36장본 <소대성전>에서 군담이 확대된 것도 군담에 대한 독자의 흥미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는 군담이 확대된 완판본의 경향과도 부합한다. 정병설은 완판과 경판의 차이가 지역적 차이가 아닌 독자의

30장본의 서술분량은 23장본보다 적었다.

28) “人有以諺碑來，爲余消長夜者，視之乃印本，而曰蘇大成傳，此其京師烟肆中，拍扇而朗讀者歟”(이옥, <봉성문여> “諺碑”)

29) 홍희복, <제일기언> 서문(정규복·박재연 교주, 『제일기언』, 국학자료원, 2001, 22면.)

30) 이창현, 앞의 책, 538면.

취향 차이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³¹⁾ 독자에 따라서 군담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면, 경판본 <소대성전>도 이에 부응하여 다양한 판본으로 존재했을 것이다. 현재 남아 있는 <소대성전> 경판본은 36장본에서부터 16장본까지 장수가 다양하며, 각 서사의 비중에서도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군담의 경우 36장본의 군담 비중이 가장 높고, 24장본의 군담 비중이 가장 낮다. 또 후일담은 36장본과 23장본에서 확대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소대성전>의 형태는 방각업자가 지속적으로 행문 변이를 통해 신판 <소대성전> 간행을 시도한 결과가 아닐까?

그동안 선행연구에서는 36장본 <소대성전>이 가장 앞선 판본이며 이후 판본들은 축약되는 방향으로 변모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36장본 이전에도 다른 판본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36장본이 선행본의 행문을 부연한 판본이라면, 경판본 <소대성전>은 축약되는 것과 동시에 부연되기도 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경판 <소대성전>을 비롯한 방각본 소설의 변모를 장수를 축소의 측면에서 조명한 것은 현전하는 자료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소대성전>은 36장본과 30장본을 제외한 나머지 23장본과 24장본, 21장본, 20장본, 16장본 등 주요 판본들이 19세기 후반에 나왔다. 이창현은 1866년 당백전 발행 및 1894년 백동화 발행으로 인한 급격한 통화가치의 하락이 장수의 급격한 변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는데,³²⁾ 24장본이 후반부를 급격히 축약하여 간행한 것이나 행수를 늘려 장수를 줄인 21장본, 행문을 줄여 축약한 16장본은 이러한 설명에 잘 부합하는 사례이다.

그러나 1799년부터 존재한 방각본 <소대성전>이 과연 장수 축소의 방향으로만 변모했을지는 의문이다. 20장본의 사례로 본다면 36장본 역시 선행본을 부연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소대성전> 행문의 부연 가능성은 당시 <소대성전>의 향유 상황을 통해서도 추론할 수 있다. <소대성전>은 조수삼의 <추재기이>³³⁾를 통해서 구송을 통해서도 향유되었다는 사실이 확인

31) 정병설, 앞의 책, 261~262면.

32) 이창현, 앞의 책, 551면.

33) “叟居東門外, 口誦諺課稗說, 如淑香蘇大成沈清薛仁貴等傳奇也”(조수삼, 『추재집』)

된다. 전기수는 책을 읽지 않고 구송했는데, 전기수가 구송한 <소대성전>은 방각본과 같은 문자텍스트를 매개로 하면서도 구송을 통해서 서사가 확대되었을 것이다. 소설 구송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 암기한 텍스트를 그대로 구송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야기꾼의 실력을 발휘해서 청중의 반응에 따라 특정 부분을 실감나게 재현해야만 청중들이 몰입할 수 있다. <소대성전>의 구송은 방각본 간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무엇보다 23장본과 20장본이 24장보다 서술분량이 많다는 사실은 장수 축소만이 개각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다양한 방각 소설이 경쟁하는 상황이라면 텍스트의 서술을 확대하려는 시도도 있었을 것이다. 방각본 소설의 경쟁력에는 가격 외에 텍스트의 흥미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작품을 여러 방각소에서 찍어낼 경우 더 낮은 가격에 찍어내려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장수를 늘려서 가격을 높이려는 시도도 있었을 것이다. 20장본의 경우도 그러하다. 20장본은 제11장 이후부터 반엽당 글자수는 줄어들면서도 서술분량이 늘어나는데, 단지 장수를 줄이고자 했다면 글자수와 서술분량을 유지했을 것이다. 20장본이 반엽당 글자수를 줄이는 한편 서술을 부연하면서 20장을 맞추었던 것은 문화상품으로서 소설의 가치가 반드시 가격에만 있지 않다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이 아닐까?

V. 결론

이상으로 36장본·24장본·23장본·20장본 <소대성전>을 대상으로 경판 <소대성전>이 그동안 파악된 바와 달리 좀 더 다양한 변이 양상을 보였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글자수로 비교하였을 때 24장본의 글자수는 23장본은 물론이고 20장보다도 적었으며, 20장본의 후반부는 서술분량이 늘어나면서도 반엽당 글자수는 적었다. 또한 서사단락별로 글자수를 비교하였는데, 20장본은 ‘청룡사의탁’과 ‘호왕의 침입’ 대목에서 36장본보다도 글자수가 많았다.

이처럼 장수로만 파악하였을 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기에 판본별 변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23장본과 36장본, 24장본과 20장본의 행문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서 36장본과 20장본은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장면을 구체화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행문이 부연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36장본과 20장본의 추가된 부분 중 서사적 맥락에 맞지 않는 사례로 보아, 행문이 더 길다고 해서 서술이 풍부하지 않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를 통해서 장수가 더 많거나 서술분량이 더 많은 판본이 반드시 선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고 방각본의 변모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장수를 축소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반박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20장본처럼 장수를 줄이면서도 서술분량을 늘리는 사례로 보아서 백년 넘게 향유되었던 경관 <소대성전>이 보다 다양한 양태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자 했다. 36장본과 20장본의 유사성으로 볼 때, 36장본이 현전하지 않는 또 다른 선행본을 부연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구송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이러한 추정은 그동안 ‘상품’으로서의 특성만 강조되었던 방각본 소설을 ‘문화상품’으로 조명하려는 시도이다. 문화상품으로서 방각본 소설은 이윤을 위한 상품이지만, 소설의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독자의 문화적 요구에 부응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윤 추구로 인한 변모 외에도 문화적 요구에 부합하려는 시도도 공존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 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30장본 <소대성전>의 행문 비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다른 경관 방각본 소설 작품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1. 자료

<소대성전>(23장), 교회사연구소 소장.

<소대성전>(24장), 파리동양어학교(국립중앙도서관 제공 이미지)

김동욱 편, 『고소설판각본전집』 1-5, 연세대출판부, 1973-1975.

정규복·박재연 교주, 『제일기언』, 국학자료원 2001.

조수삼, 『추재집』

이옥, 『봉성문여』

2. 단행본

류탁일, 『완관 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 학문사, 1981, 1~286면.

이창현, 『경관 방각소설 판본 연구』, 태학사, 2000, 1~607면.

정병설, 『조선시대 소설의 생산과 유통』, 서울대출판부, 2016, 1~329면.

3. 논문

류준경, 『독서층의 새로운 지평 방각본과 신활자본』, 『한문고전연구』 13, 한국한문고전학회, 2006, 271~302면.

서경희, 『<소대성전>의 서지학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1~113면.

서혜은, 『경관 <소대성전>의 대중화 양상과 그 향유 의식』, 『한국사상과문화』 75, 한국사상과문화학회, 2014, 37~59면.(서혜은, 『경관본 소설의 대중성』, 새문사, 2017, 272~295면 수록)

유춘동, 『방각본 소설의 새 자료와 과제』, 『고전과 해석』 17, 고전문학한문학회, 2014, 59~82면.

_____, 『일본 고마자와 대학 다쿠소쿠 문고 소장 조선전적과 고소설에 대한 연구』, 『한국학논집』 48,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2, 299~326면.

이유진, 『<소대성전> 이본의 계통과 전변과정』,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1~159면.

이지영, 『경관 춘향전의 개작방향에 대한 재론』, 『어문연구』 39(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1, 113~137면.

전상욱, 『방각본 춘향전의 성립과 변모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180면.

_____, 『한글방각소설신자료 고찰』, 『열상고전연구』 31, 열상고전연구회, 2010, 143~167면.

A Reexamination of the Commercially Publication of Woodblock-printed *Sodaeseongjeon* in the Seoul Area

Yi, Ji-Young

Until now, variations in the woodblock-printed *Sodaeseongjeon* have primarily been examined in terms of the reduction in the number of folios, focusing only on a transformation in a single direction-toward fewer physical leaves. As a result, there has been insufficient explanation for cases where versions with fewer folios actually contain longer or more numerous sentences. This paper re-examines the patterns of variation in the woodblock-printed *Sodaeseongjeon* by comparing the narrative volume and distribution based on character count across the 36-folio, 24-folio, 23-folio, and 20-folio editions, and by conducting sentence-by-sentence comparisons between the 36- and 23-folio versions, as well as between the 24- and 20-folio versions.

First, a comparison of character counts per half-leaf shows that the 24-folio edition contains less narrative content than the 20-folio edition, and that in the 20-folio edition, even though the number of characters per half-leaf decreases in sections up to folio 11, the total narrative volume actually increases. Furthermore, a comparison of character counts by narrative segment reveals that the 20-folio edition includes more characters than the 36-folio edition in parts such as “Reliance on Cheongnyong Temple” and “The Invasion by the Barbarian King,” and that the 36-folio edition shows a relatively balanced distribution between the former and latter halves of the text.

Next, to more precisely identify how the text changed across versions, sentence-level comparisons were made between the 23- and 36-folio editions, as well as between the 24- and 20-folio editions. These comparisons revealed that the added lines in the 20-folio edition resemble those in the 36-folio edition, particularly in their tendency to include more concrete descriptions, frequent use of conventional phrases, and the presence of passages that appear inconsistent with the narrative

context.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inferred that the added lines in the 36-folio edition may have been intended to cater to a wider range of reader preferences.

Keywords: *Sodae-seongjeon*, Commercially Woodblock-printed edition in Seoul, 36-folio edition, 24-folio edition, 23-folio edition, 20-folio edition, Character count, sentence-level comparisons

접수일자: 2025. 3. 30. 심사기간: 2025. 4. 1.~2025. 5. 10. 계재결정: 2025. 5. 10.
--

